

#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후치정관사 문법화의 이론적 쟁점\* \*\*

정 정 원

(충북대학교 러시아·알타이지역 연구소 학술연구교수)

##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후치정관사 문법화와 관련된 주요 사실들과 이론적 쟁점을 살펴본다. 첫째, 명사구 한정성의 문법화 기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데, 그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후치정관사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문법화되었다. 둘째,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후치정관사는 일원 체계 또는 삼원 체계인데, 둘 중 어떤 것이 더 근원적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셋째,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후치정관사가 독립적 단어인 접어인가, 단어의 일부인 접사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다. 넷째,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후치정관사가 언제,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가설이 존재한다. 다섯째,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후치정관사 발생과 격 표지 상실의 상관관계, 여섯째,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후치정관사와 동사 한정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존재한다.

주제어 :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슬라브어, 발칸어, 언어연합, 한정성, 후치정관사, 문법화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3S1A5B5A16078163)

\*\* 2024년 10월 12일 “러시아학 4개 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슬라브어 한정성의 문법화: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후치정관사의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연구 결과를 수정, 보완하였음.

## I. 서론

한정성(definiteness)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한정성의 본질을 크게 친숙성(familiarity) 또는 유일성(uniqueness)으로 본다(Czardybon 2017, Hawkins 1991, Ionin 2006, Löbner 2011, Ortmann 2014, Roberts 2003 등). 친숙성은 청자에게 정체가 알려진 대상의 특성이며, 선행 문맥에서 언급된 대상이 재언급되거나 단순히 암시만 됐던 대상이 명시적으로 처음 언급될 때 그 표현은 친숙성에 기반한 한정성을 획득한다. 유일성은 그 존재가 유일무이한 개체의 특성이며, 일반 인간사회나 특정 언어공동체, 특정인, 특정 대상에게 유일한 것으로 간주되는 천체, 기관, 대표자, 가족 구성원, 신체 부위, 전체와 부분 등을 지시하는 표현이 선행 문맥과 무관하게 유일성에 기반한 한정성을 획득한다. 한정성은 고유명사, 인칭대명사, 지시사, 격, 동사 상, 어순, 문장 강세 등 다양한 언어 단위와 방법을 통해 드러나며, 대부분의 유럽어에는 한정성 표시에 특화된 관사(article)가 독립된 단어나 표지로 존재한다. 관사에 의해 명시되는 한정성은 특정 언어에서 별도의 품사를 형성하거나 문법범주가 되고, 관사 없이 다른 방법만으로 부차적으로 표현될 때 그 언어의 한정성은 의미범주가 된다.

대부분 언어에서 정관사(definite article)는 청화자와 대상의 거리를 가리키는 지시사(demonstrative)의 공간 의미가 텍스트 및 담화 표지로 발전하면서 파생되었고(Heine & Kuteva 2002:109-110), 슬라브어에서 문법화가 완료되거나 진행중인 한정성 표지도 모두 지시사에서 파생되었다. 슬라브어 중에는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한정성의 문법화가 완료되어, 지시사와 통시적, 공식적으로 연관된 후치정관사를 독립적 표지로 가진다.

한편 비한정성(indefiniteness)은 단순히 한정성의 부재를 의미하거나 비한정적 특정성(specificity)으로 환원되기도 하는데, 특정성은 청자에게 정체가 알려지지 않아 비한정적이지만 화자는 정체를 알고 있는 구

체적이고 특정한 개체를 가리키는 표현에서 드러난다. 비한정적이고 특정한 대상을 표시하는 부정관사(indefinite article)는 대부분의 유럽어에서 ‘하나’를 의미하는 단어와 형태가 같거나 그 단어에 어원을 둔다. 개별 현대 슬라브어의 ‘하나’도 부정관사 역할을 하는데, 어떤 슬라브어에서도 그 사용이 규칙적이거나 필수적이지 않아 아직 문법화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나마 불가리아어 един, 마케도니아어 еден은 다른 슬라브어에 비해 더 널리, 더 활발하게 부정관사로 기능한다(Mladenova 2007:196-209, Naylor 1981/1982:533, Naylor 1983:211-214, Станков 1995:87-150, Тополињска 1981/1982)<sup>1)</sup>.

그 밖의 대부분 슬라브어 표준어와 방언에서 한정성, 비한정성은 별도의 독립적 표지를 획득하지 못했거나 필수적이지 않으며, 현재 각각 다른 수준에서 문법화가 진행되고 있다.

슬라브어 한정성의 문법화에 대한 중장기 연구의 도입부가 될 본 연구에서는 한정성, 비한정성이 높은 수준으로 문법화된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후치정관사를 둘러싼 이론적 쟁점을 살펴보겠다.

## II.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한정성 문법화의 주요 쟁점

### 1.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명사구 한정성의 문법화

특정 상황에서 명사구가 지시하는 대상의 한정성을 표현하는 명사적 문법 수단인 정관사는 620개 언어 중 34.8%인 216 언어에서 독립적 형태로, 11.1%인 69 언어에서 지시사와 동일한 형태로 존재하고, 3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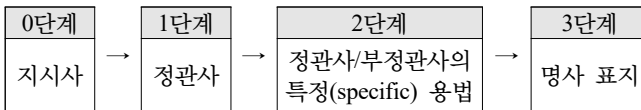
1) 초기 체코어 문헌에서 jedin이 некий, етерь를 대신했기 때문에, 슬라브어 ‘하나’의 부정관사 용법을 모라비아니즘(Moravianism)으로 보기도 한다(Flier 1974:145, Львов 1966:97-98). 하지만 그 고대 체코어 용법이 다른 슬라브어에 직접 영향을 미쳤는지, 그 영향이 현재까지 계속되는지는 분명치 않다.

에 해당하는 243개 언어에는 부재한다(Dryer 2015a). 부정관사는 534개 언어 중 19.1%인 102 언어에서 독립적 형태로, 20.9%인 112 언어에서 ‘하나’를 지시하는 표현으로 존재하고, 55.4%에 해당하는 296개 언어에는 부재한다(Dryer 2016b). 즉 언어 전반적으로 정관사가 부정관사보다 더 많이 문법화된 상태인데, 이는 슬라브어에서도 대체로 그러하다.

그렇다면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와 같은 정관사 있는 슬라브어와 나머지 정관사 없는 슬라브어를 구분하는, 한정성 문법화의 기준은 무엇인가? 기존 연구에서는 통시적으로 지시사가 정관사가 되는 과정에서 직시성(deicticity)을 잃어 의미 퇴색(semantic bleaching)이 발생할 때(Lyons 1999:331), 지시사가 총칭(generic)으로 사용될 때(Krámský 1972:33, 62), 연상적 대용(associative anaphora)과 선행 맥락 없이 의미적으로 유일한 개념을 표현할 때(Himmermann 2001:831-841, De Mulder & Carlier 2011:531), 화제(topic)적 대용 표현에서 필수적이고, 강세를 받지 않을 때(Diessel 1999:118-128) 등 다양한 기준을 상정한다. 한정성의 문법화가 비교적 많이 진행된 서슬라브어, 즉 체코어, 폴란드어, 슬로바키아어, 고지/저지 소르브어(Upper/Lower Sorbian) 표준어와 방언의 지시사는 이 기준들을 부분적으로 만족시킨다. 한정성의 문법화가 완료된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정관사는 이 기준을 모두 만족시킴과 동시에, 음운적 마모(attrition) (Lechmann 1985)라는 문법화 과정을 통해 길이가 짧아져, 형태적으로도 지시사와 구별된다.

이러한 한정성의 문법화 과정은 (1)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1) 한정성의 문법화 과정 (Greenberg 1978)



우선 0단계에서 1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지시사의 의미 상실이 일어나 직시(deixis) 이상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화용적 한정성 이외

에 의미적 한정성도 표현해야 한다. 화용적 한정성은 선행 담화에서 언급된 친숙한 대상을 다시 언급할 때, 의미적 한정성은 맥락과 무관하게 청자가 그 정체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을 언급할 때 드러난다. 2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연상적 대응, 즉 선행 담화에서 언급된 대상에 연관되나 그 자신은 담화에서 처음 언급되는 대상의 표현에 정관사가 붙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관사가 당연한 형태가 되어 이제 공식적으로는 한정성과 관계없는 자질을 표시해야 한다 (Greenberg 1978:61-74, De Mulder & Carlier 2011:524-525).

(1)을 슬라브어에 적용해 보면, 관사 없는 슬라브어는 0단계에 머물러 있고,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는 1단계를 넘어 2단계에 진입했다 할 수 있다. (2)는 한정성 문법화 1단계의 특징인 의미적 한정성을 표현한다. 두 언어 모두에서 유일성을 가진 신체 부위 ‘심장’을 지시하는 단어는 선행 담화 등장 여부와 관계없이 정관사를 동반한다. (3)은 한정성 문법화 2단계의 특징인 연상적 대응의 예시이다. 불가리아어 (3a)에서 *пилета*(닭들)는 첫 등장하는 단어 *птицеферма*(조류 사육장)에, 그리고 선행 문맥과 *управител*(매니저)라는 단어에서 드러나는 회사라는 공간은 *вход*(입구)에 후치정관사를 부여하고, 마케도니아어 (3b)에서 누군가 아픈 상황은 텍스트에 첫 등장한 *лекар*(의사)에 후치정관사를 부여한다.

- (2) a. 불. **Сърцето** ме боли, когато го гледам това. (그걸 보면,  
(그) 내 마음이 아프다)
- b. 마. **Срцево** ме боли кога го гледам тоа. (Topolinjska 2014:179)
- (3) a. 불. (...) **новият** управител закупи два кафеза с живи **пилета** от **птицефермата** и ги постави пред **входа**. (Mladenova 2007:61) (새 매니저는 (그) 조류사육장에서 닭이 든 상자 두 개를 사서 그것을 (그) 입구 앞에 놓았다.)
- b. 마. Еден од војниците беше болен. **Лекарот** му се доближи на болницот. (Topolinjska 2014:181) ((그) 군인 중 하나가 아팠다. (그) 의사는 (그) 환자에게 다가갔다.)

(4)는 한정성을 유일성 자질로 환원시킨 유일성 등급(Scale of Uniqueness) (Löbner 2011:320)<sup>2)</sup>을 실제 언어 데이터 분석에 기반하여 수정한 한정성 위계인데, (4)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한정성이 낮아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아진다. (4)에 적용하면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는 어휘적 IN/FN까지, 즉 태양, 왕, 머리 등 어휘 의미 자체로 한정적인 단어에까지 정관사가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영어, 독일어 정관사도 대체로 어휘적 IN/FN까지 필수적이다.

- (4) 직시적 SN < 대응적 SN < 관계절 피수식 SN < 관계적 연상 대응 < 부분-전체 연상 대응 < 비어휘적 FN < 어휘적 IN/FN < 고유 명사 < 인칭대명사 (Ortmann 2014:194)<sup>3)</sup>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에서는 유일성 위계의 좀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고유명사에, 비록 필수적이진 않지만, (5)와 같이 정관사가 붙을 수도 있다. 또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과 달리<sup>4)</sup>, (6)처럼 또다른

2) ‘개념 유형과 한정성(Concept Types and Determination)’ 이론에 따르면, 명사는 내재적 유일성과 관계성(Relation) 유무에 따라 (i)의 4범주로 나눌 수 있다. (Löbner 2011:307)

(i)

	[-]유일성	[+]유일성
[-]관계성	SN (Sortal Nouns) : <i>stone, book...</i>	IN (Individual Nouns) : <i>moon, weather, Maria...</i>
[+]관계성	RN (Relational Nouns) : <i>sister, leg...</i>	FN (Functional Nouns) : <i>father, head, age...</i>

이때 오른쪽 IN, FN과 같이 내재적 유일성이 있는 단어는 본디 의미적 한정성을 보유하고, 왼쪽 SN, RN과 같이 내재적 유일성이 없는 단어는 대화나 텍스트에서 화용적 한정성을 획득한다. 가로축의 SN, IN은 다른 대상과의 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RN, FN은 다른 대상과의 관계를 전제한다.

- 3) (4)에서 ‘비어휘적 FN’은 수사, 최상급과 같이 다른 어휘와 결합하여 비단일 어휘의 형태로 유일성을 획득하는 경우이다.
- 4)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소유형용사에 정관사가 병기될 수 없는 것이 경제성에 기인한다고 보기도 한다. 소유형용사 구문이 한정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정관사가 생략될 수 있다는 것이다(Haspelmath 1999:227). 하지만 이것은 의미적으

한정성 표지인 소유형용사 뒤에도 정관사가 붙는 것이 일반적이다.<sup>5)</sup> 그 밖의 여러 환경에서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정관사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정관사보다 더 자주, 더 널리 사용된다. 예를 들어 ‘A는 B이다’ 구조의 주어가 총칭(generic)을 표현할 때, (7)처럼 영어, 독일어에서 무관사가 되는 추상명사까지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에서는 항상 정관사가 붙는다.

- (5) a. 불-로. Росицата али си дошлала? (Mladenova 2007:188)<sup>6)</sup>  
 ((그) 로시차는 집에 왔어?)  
 b. 마. Ми здодеа Скопјево! (Topolinjska 2014:179) (나는 (이) 스코페가 지겹다.)
- (6) a. 불. Мојт пријател се казва Карлос. ((그) 내 친구 이름은 카를로스다.)  
 b. 마. Мојот пријател се вика Карлос. (Topolinjska 2014:180)
- (7) a. 불. Човекът е смъртен. Любовта е сладка. Пушето е забранено.  
 b. 마. Човекот е смртен. Љубовта е слатка. Пушењето е забрането.  
 c. 영. Man is mortal. Love is sweet. Smoking is prohibited.

(Naylor 1981/1982:535, Naylor 1983:215)

---

로 한정적인 다른 어휘에 정관사가 병행될 때 왜 그 경제성이 무시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 5) 친족명에서는 예외적으로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장형, 단형 소유대명사와 정관사의 결합이 제한된다. 마케도니아어에서는 (ii)와 같이 여격 소유대명사(dative possessive) ми에 선행하는 가족명 뒤 정관사가 감정적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Topolinjska 2014:180), 상응하는 불가리아어 표현 (iii)의 정관사 표현은 모욕적이어서 잘못된 어법으로 치부된다(Mladenova 2007:112).
- (ii) 마. мајка ми — мајката ми (나의 어머니)  
 (iii) 불. майка ми — \* майката ми
- 6) 고유명사에 붙는 불가리아어 후치정관사는 구어체나 중부 발칸 방언, 남부 로도피 방언 등 일부 지역방언에 특징적이다(Mladenova 2007:89). (5a)는 불가리아어 로도피 방언의 예시다.

이밖에 불가리아, 북마케도니아 국경 밖 슬라브어에서도 정관사가 발견된다. 우선 이 두 나라와 국경이 맞닿는 세르비아 남동부, 코소보, 알바니아, 루마니아 일부, 북마케도니아 북부, 불가리아 북서부에서 사용되는 토를라크(Torlak) 방언에도 중간 -ьт, -та, -то, 근칭 -ьв, -ва, -во, 원칭 -ьн, -на, -но의 삼원 후치정관사가 존재한다.

발칸반도 밖에서는 독일 동부의 슬라브어인 소르브어의 기존 지시사 *tón, ta, te/to*가 *tu-*(여기) 뒤에 붙거나 *-ne* 앞에 붙는(*tóne, tane, tene*) 등의 변화를 통해 길어지며 형태적으로 강화되는 한편, *tón, ta, te/to* 자체는 직시성을 상실하고, 문장 강세도 받지 않는 정관사로 문법화되었다(Heine & Kuteva 2006:113, Ortman 2014:307). 폴란드 남서부 고지 실레시아 방언의 지시사 *tyn, ta, te*도 서수사, 최상급, 관계사의 선행사, 연상적 대응에서 사용되는 등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문법화되었다(Ortman 2014:307-314). 또한 슬로베니아어 구어의 강세 없는 *ta*는 서수사, 최상급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며(Marušič & Žaucer 2007), 체코어 구어의 거리중립 지시사 *ten*는 연상적 대응, 최상급, 유일성을 드러내는 어휘 앞에 매우 자주 등장하고, 총칭에도 가끔 사용되는 등 (Cummins 1998, Kresin 2002, Dvořák 2020) 문법화가 꽤 많이 진행된 상태이다. 비록 학술연구로 확인하진 못했지만, 사용 지역 및 언어 구조 자체에서 체코어와 매우 가까운 슬로바키아어에서도 *najlepší*(가장 좋은)와 같은 최상급 앞에 지시사 *ten*이 붙은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 즉 관사 없는 슬라브어 중에서도 관사 있는 독일어와 수 세기 동안 직접 접촉하며 그 영향을 많이 받은 슬라브어에서는 구어와 지역방언에서 정관사의 문법화가 꽤 많이 진행되었다.

같은 이유로,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와 국경을 마주하는 이탈리아 우디네(Udine) 지역에서 사용되는 슬로베니아어 레시아(Resia) 방언의 *te*도 원칭지시사 *itë*의 파생 형태로 정관사 역할을 하고 있으며(Runić 2013), 이탈리아 남부 몰리세(Molise)의 크로아티아어 방언에서도 지시사를 주제적 대응(thematic anaphora)의 정관사로 사용하고 있다(Heine



& Kuteva 2006:113)고 보고된다.

이와 더불어 일부 학자들은 러시아어 북부방언의 어말 -от, -та, -то, -те를 정관사로 보기도 한다. 그 어말 위치와 형태가 남슬라브어 후치정관사와 유사한 것을 근거로, 개별 슬라브어 분화 이전 후기 원슬라브어에 이미 정관사가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Гъльбов 1962:106-107, Мирчев 1978:198). 이것이 유형학적으로 슬라브어가 아니라 북게르만어나 우랄-알타이어인 페름어의 정관사와 연관된다고 보는 주장도 있다(Касаткина 2008:305, 310, 318). 하지만 러시아어 북부방언의 공용하는 어말 -то는 명사뿐 아니라 대명사, 형용사, 수사, 동사, 부사, 전치사 뒤에도 붙고, 한정성보다는 강조 및 감정이입을 표현하여, 남슬라브어 후치정관사와의 형태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통사적, 의미적 관점에서 정관사라 보기 어렵다(Гъльбов 1962:101, Касаткина 2008:310-319). 그 기능상, 다른 러시아어 방언 및 표준어의 -то와 같은 소사(particle)라고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한편, 인접 지역의 정관사 부재 언어의 영향으로 후치정관사 사용이 제한되는 불가리아어 방언도 있다. 세르비아와 국경을 접한 비딘(Видин) 지역 노보셀로(Ново Село) 방언<sup>7)</sup>에서는 다른 불가리아어 방언과 달리 명사에 후치정관사가 붙지 않고, 대신 명사 뒤에 단형 인칭대명사를 반복하는 접어 반복(clitic duplication)이 두드러지며, 형용사에는 후치정관사가 붙지만, 이때 정관사는 다른 불가리아어 방언 및 표준어와 달리 중립지시사 тъ가 아닌 원칭지시사 онъ에서 파생된 형태이다(Гъльбов 1962:108, Mladenova 2007:91, 321)<sup>8)</sup>.

7) 사용 지역 위치는 II-2절 지도 (18) 좌측 상단의 주황색 표시 참고.

8) 불가리아어 노보셀로 방언 (8a)의 ga는 3인칭대명사 남성/중성 단수 단형이며, 불가리아어 표준어라면 ga 대신 selo 뒤에 중성 후치정관사 to가 붙어서 한정성을 표현했어야 한다. (8b)의 belunu(흰)는 표준어라면 belata처럼 여성 형용사 주격 bela에 후치정관사 여성형 ta가 붙은 형태여야 한다.

- (8) a. 불-노. **Sěno**<sub>acc.</sub> **ga**<sub>acc.</sub> dokŭrāmo jōštŭ. (우리는 어제 벌써 (것을) 건초를 가져왔다.) (Mladenova 2007:91)  
 b. 불-노. Zŭkolŭ **bělŭnu**<sub>acc.</sub> kokóšku<sub>acc.</sub>. ((저) 흰 암탉을 죽여라.) (Mladenova 2007:321)

이상에서 살펴본 슬라브어 한정성 표지 발현 지역을 지도로 표시하면 (9)과 같다.

(9) 슬라브어 한정성 지도<sup>9)</sup>



9) 지도 (9)은 기존 슬라브어 지도(출처:<https://docs.verbix.com/Languages/Slavic>, 검색일: 2024.12.27.)에 명사구 한정성 문법화를 표시한 것이다. 진파랑 별은 한정성 문법화가 완료된 언어, 하늘색 세모는 한정성 문법화가 진행중인 언어, 흰색 세모는 한정성 표지 존재 의혹이 제기되거나 신빙성이 낮은 경우를 표시하고, 한정성 문법화가 국어 수준에서 진행된 경우는 그 나라의 국경도 동일한 색으로 덧붙여 표시했다.

## 2.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명사구 한정성 표지의 삼원성

불가리아어 표준어 지시사(demonstrative)는  $\tau$ -어간 근칭,  $\eta$ -어간 원칭의 이원 체계이고, 지시사에서 발전한 후치정관사는  $\tau$ -어간 일원 체계이다. 불가리아어 표준어에서 명사 후치정관사는 남성 주격  $-\text{ът/ят}$ , 여성  $-\text{та}$ , 중성  $-\text{то}$ , 복수  $-\text{те/-та}$ 이고, 남성은 사격에서  $-\text{а/-я}$ 가 된다. (10a), (10b)가 그 예시이다. 한편, 명사 앞에 형용사, 소유형용사 등 수식어(modifier)가 오면 한정성 표지는 첫 수식어 어말로 이동하고, 형태적 표지는 (10c), (10d)와 같이 남성 주격  $-(\text{и})\text{я}(\text{т})$ , 여성  $-\text{та}$ , 중성  $-\text{то}$ , 복수  $-\text{те}$ , 사격에서 남성은  $\tau$ 가 탈락한  $-(\text{и})\text{я}$ 가 된다.

- (10) a. 불. Къде е прозорецът / учителят / книгата / леглото? Къде са моливитете? (어디에 (그) 창문 / 선생님 / 책 / 침대 / 연필(들)이 있어?)
- b. 불. Видям прозореца / учителя / книгата / леглото / моливите. (난 (그) 창문 / 선생님 / 책 / 침대 / 연필(들)을 보고 있어.)
- c. 불. Къде е твоя прозорец / твоят учител / твоята книга / твоето легло? Къде са твоите моливи? (어디에 (그) 너의 창문 / 선생님 / 책 / 침대 / 연필(들)이 있어?)
- d. 불. Обичам своя прозорец / своят учител / своята книга / своето легло / своите моливи. (난 (그) 내 창문 / 선생님 / 책 / 침대 / 연필(들)을 좋아해.)

한편 현대 마케도니아어 표준어는 ‘삼원 지시사 - 삼원 정관사’ 체계로, 지시사, 정관사 모두  $\nu$ -어간,  $\tau$ -어간,  $\eta$ -어간의 삼원 구조이다. 즉 화자에 가까운 대상을 지시하는 근칭  $\text{овој}$ , 화자에게 멀고 청자에게 가까운 대상을 지시하는 중간  $\text{тој}$ , 화자와 청자에게 모두 먼 대상을 지시하는 원칭  $\text{оној}$ 의 삼원 지시사 체계에서 마케도니아어 삼원 정관사가 생겨났고, 정관사가 지시사의 삼원 체계까지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이에 마케도니아어

어 정관사는 중립 T-어간 후치정관사 남성 -(и)от, 여성 -та, 중성 -то, 복수 -те/-та<sup>10)</sup>, 근칭 V-어간 후치정관사 남성 -(и)ов, 여성 -ва, 중성 -во, 복수 -ве/-ва, 원칭 H-어간 후치정관사 남성 -(и)он, 여성 -на, 중성 -но, 복수 -не/-на 이다.

마케도니아어 삼원 정관사가 암시하는 직시 의미 때문에 (11)는 어색한 문장이 된다(Конески 1953/1967:229). (11a)의 근칭 후치정관사 -ва는 대상이 화자의 영역 안에 있음을 표시하는데, 그 영역 밖 청자에게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며, (11b)의 원칭 후치정관사 -на는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먼 대상의 한정성을 드러내는데, 자기 공간 밖 대상을 화자가 청자에게 건네는 것이 이상하기 때문이다. (12a), (12b)처럼 후치정관사를 맞바꾸면 그 어색함은 해결된다. 또한 (13a), (13b)의 중립적 T-어간 후치정관사는 직시적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 가능하다.

(11) a. 마. ? Дај ми ја книгава. (?나에게 (이) 책을 줘.)

b. 마. ? На ти ја книгана. (?자, 너에게 (저) 책.)

(Конески 1953/1967:229)

(12) a. 마. Дај ми ја книгана. (나에게 (저) 책을 줘.)

b. 마. На ти ја книгава. (자, 너에게 (이) 책.)

(13) a. 마. Дај ми ја книгата. (나에게 (그) 책을 줘.)

b. 마. На ти ја книгата. (자, 너에게 (그) 책.)

마케도니아어 삼원 정관사는 물리적 거리뿐 아니라, 감정적, 인지적 거리도 드러낸다. 대상이 물리적으로 화자의 공간 밖에 존재하더라도 가까이 있다고 상정되거나 감정이입 되면, (14)처럼 근칭 정관사를 사용

10) “남성 -(и)от”은 명사 뒤에서 -от, 수식어 뒤에서 -иот이 됨을 표현한다. -(и)ов, -(и)он도 마찬가지다. “복수 -те/та”의 та는 중성명사 복수 후치정관사 -та를 의미하고, 나머지 명사와 수식어는 복수에서 -те를 취한다. -ве/ва, -не/на도 마찬가지다.

할 수 있다(Конески 1949:269). 반대로 (15)처럼 원칭 정관사를 통해 화자와 물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대상을 멀리 있는 중요치 않은 존재처럼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 (14) a. 마. Милувам секој ден под **твојов** прозорец. (Sonnenhauser 2009:123) (항상 난 (이) 너의 창문 밑을 지나가.)  
 b. 마-프<sup>11)</sup>. Шо да се прај со **чоєюф**? (Конески 1949:269).  
 ((이) 사람은 어떻게 하지?)
- (15) 마. Потрај малку, додека ги измолзам **овцине** ... Одговори старецот и се сврте кон котарот, од каде што допираше блесње и овците нетрпеливо подаваа глави преку плетот. (Конески 1953/1967:229) (내가 (저) 양젓 짤 동안 잠깐만 기다려. (그) 노인은 이렇게 말하고는, (그) 양들은 (그) 울타리 이음새 사이로 성마르게 머리를 들이밀고, 그 자신은 그 울음소리를 어루만지던 (그) 우리 쪽으로 몸을 돌렸다.)

더 나아가 일부 불가리아어 방언에 존재하는 삼원 정관사는 시제나 증거성(evidentiality) 등 문법범주를 부차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불가리아, 그리스 북동부, 튀르키예 북서부 무슬림이 사용하는 불가리아어 포마크(Pomak) 방언의 현재 시제 문장에서 s-어간<sup>12)</sup>, t-어간, n-어간의 삼원적 정관사는 대화참여자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암시하지만, 과거, 미래 시제 문장에서는 시제 자체가 특정 후치정관사와 밀접하게 연동된다. (16)과 같이 과거 사건은 명사구의 화자원칭-청자근칭 t-어간 정관사로, 미래 사건은 청화자원칭 n-어간 정관사로 표현한다(Adamou 2011:876-877). 또한 직접 경험하지 않고

11) 북마케도니아 중부 프리레프(прилеп) 방언 예시.

12) 불가리아어 남부 방언의 삼원 지시사 및 삼원 정관사에서 근칭은 s-어간이 된다. 현대 러시아어 *сейчас, сегодня, до сих пор* 등에 남아 있는 어근 s'-와 어원을 같이 한다. 그 밖에 화자원칭-청자근칭 어간 t-, 청화자원칭 어간 n-은 마케도니아어 표준어의 삼원적 지시사, 정관사와 동일하다.

전해 들은 내용을 표현할 때는 청화자원칭 n-어간 정관사 사용이 지배적인데, 이는 포마크 방언뿐 아니라 남부 로도피(Родопи) 방언에도 나타나는 특징이다(Adamou 2011:878-879, Каневска-Николова 2005:17-18). 로도피 방언 (17)에서 동일한 대상 писмо(편지)가 동사 재서술(renarrative) 과거형 дали을 통한 간접경험 묘사에서는 청화자원칭 писмоно가 되고, 아오리스트 испе을 통한 직접경험 표현에서는 화자근칭 писмосо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

(16) 불-포. a. na 'sfadba-**ta** beh sas tfer'ven-**et** fu'stan ((그) 결혼식에서 난 (그) 빨간 드레스 입었다.)

b. na 'sfadba-**na** je 'nadena-m tfer'ven-**en** fu'stan ((저)결혼식에서 난 (저) 빨간 드레스 입을 거다.)

c. na 'sfadba-**sa** sam. 'ima 'mnogo i'nsan (난 (이) 결혼식에 있다. 사람이 많다.) (Adamou 2011:877)

(17) 불-로. порукали и момче**но**. Дали му писмо**но** и го испело. Патрикана го попитал: Ти хубаве испе писмо**со**, ами оти не каза владикусму право?<sup>13</sup>) (Каневска-Николова 2005:17)

이와 같이 시제나 증거성의 문법 표지가 삼원 지시사 및 삼원 정관사 본연의 물리적 거리를 반영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화자로부터 상대적으로 먼 거리를 암시하는 t-어간, n-어간 정관사는 발화 시점과 시간적 간극을 가진 과거, 미래시제와 연동된다. 그중에서도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먼 대상을 지시하는 n-어간 정관사는 화자와 청자 모두 아직 경험한 바 없는 미래 사건 및 화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 화청자 모두 확

13) 불가리아어 원어민들에게 (17)의 해석을 문의했으나, 해당 방언 화자나 방언 학자가 아니면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표준어 어휘와 문법에 기반하여 본 연구자가 추정하는 (17)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그들이 (저) 소년도 불렀다고 한다. 그들은 그에게 (저) 편지를 주었고, 그는 그것을 썼단다. (저) 귀족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이) 편지를 잘 썼구나. 그런데 왜 주교님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지?”

신이 없는 간접경험 정보와 같이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서 인지적 거리감이 있는 정보와 연동된다.

삼원 후치정관사가 마케도니아어 표준어만의 특징은 아니다. 우선 마케도니아어 방언을 동방언과 서방언으로 크게 나눌 때, 삼원 후치정관사는 마케도니아어 서방언의 특징이며, 마케도니아어 표준어가 바로 이 서방언에 속한다. 여기에 덧붙여 북마케도니아 북쪽 스코페 츠르나고라(Скопска Црна Гора) 방언, 쿠마노보(Куманово) 방언의 정관사는 표준어 남성 후치정관사의 모음 o가 불가리아어처럼 ъ로 대체된 -ъв, -ът, -ън의 삼원 체계이다. (16), (17)에서 보듯, 불가리아어에서도 삼원 후치정관사가 관찰되는데, 세르비아와 인접한 불가리아 북서쪽 트린(Трѣн) 방언, 불가리아어 서방언의 정관사는 -ъв, -ът, -ън의 삼원 체계이고, 불가리아 남쪽 로도피 방언은 근칭이 с-어간이 되는, -ъс, -ът, -ън의 삼원 체계이다.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국경 넘어, 세르비아 남동부 토를라크어 중 티모크-자플란(Тимок, Заплан) 방언의 정관사도 -ъв, -ът, -ън의 삼원 체계이다. 또한 마케도니아어 서방언, 즉 북쪽에서 서남쪽으로 이어지는 테토보(Тетово) - 벨레스(Велес) - 비톨라(Битола) - 데바르(Дебар) - 오흐리드(Охрид) - 스트루가(Струга) - 프레스파(Преспа) 방언과 인접한 알바니아, 그리스 지역에서 사용되는 마케도니아어에도 삼원 후치정관사가 나타난다(Mladenova 2007:317-318, Гълъбов 1962:63, Конески 1957:26, Стойков 2002:232, Тополињска 2006)<sup>14)</sup>. 이러한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삼원 정관사 분포는 두 언어가 형성하는 방언적 연속성(dialect continuum)<sup>15)</sup>을 반영한다.

14) 이 외에 이원 정관사 체계를 가진 불가리아어 방언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으나, 불충분한 데이터 분석에 따른 잘못된 정보인 것으로 밝혀졌다(Mladenova 2007:319, 각주 10).

15) 이것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언어들이 만나는 변방 지역 방언들이 많은 특징을 공유하는 언어 일반적 특징을 의미하며, 불가리아 학자들의 주장처럼 마케도니아어가 불가리아어 방언일 뿐 독립 언어가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다.

(18) 마케도니아어 방언지도와 불가리아어 정관사 지도<sup>16)</sup>



현대 마케도니아어, 불가리아어가 어떻게 두 종류의 정관사 체계, 즉 마케도니아어 표준어 및 서방언, 불가리아어 일부 방언의 삼원 정관사, 그리고 불가리아어 표준어와 대부분의 방언, 마케도니아어 동방언의 일원 정관사를 가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존재한다.

우선 삼원 지시사에서 발전한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후치정관사가 원래 삼원 체계였는데, 일부 방언에서 τ-어간 중심의 일원 체계로 통합되었고 그것이 확산, 발전했다는 주장이 있다(Гълъбов 1962:63-65, Колев 1991:67, Конески 1957:26, Мирчев 1978:204 등). 삼원 정관사는 15세기 중세 불가리아어 문헌과 그 이전 고대 불가리아어 기념비에도 등장한다(Гълъбов 1962:64). 근칭 този, 원칭 онзи의 이원 구조인 현대 표준 불가리아어 지시사와 달리, 불가리아어 서북, 서남 방언 중에는, 지시사는 아직도 삼원 체계이면서, 정관사는 τ-어간 일원 체계인 방언들이 남아 있고, 현재 일원 정관사를 가진 방언들에서 남성 후치정관사가 τ, в, н 등의 자음 없이 모음 -а/ъ만 남아, 직시성을 표시하지 않는 변이형

16) 마케도니아어는 정관사만 따로 표시된 지도를 찾지 못해, 방언지도로 대신했다 ([http://en.wikipedia.org/wiki/File:Macedonian\\_Slavic\\_dialects.png](http://en.wikipedia.org/wiki/File:Macedonian_Slavic_dialects.png), 검색일: 2024.12.27). 불가리아어 정관사 지도는 Mladenova (2007:434-436)의 지도를 참고하여 Bulgaria Map by Vemaps.com (<https://vemaps.com/bulgaria/bg-01>, 검색일: 2024.12.27) 에 새롭게 표시했다. 이 지도의 하늘색은 삼원 지시사, 파란 점(·)은 삼원 정관사 지역이고, 나머지는 일원 정관사, 이원 지시사 지역이며, 주황색은 명사 후치정관사가 부재하는 노보셀로 지역이다(II-1절 (8) 참고).



이 등장하는 옛 문헌이 발견된다(Гълъбов 1986, Колев 1991:66-67). 이에 역사적으로 그러한 전이 단계를 거친 후 대부분의 불가리아어 방언이 현재의 ‘이원 지시사 - 일원 정관사’가 되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Колев 1991:67).

반대로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후치정관사가 현대 불가리아어와 같이 원래 일원 체계였으며, 일부 지역방언에서 예외적으로 삼원 체계가 뒤늦게 등장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Mladenova 2007:319-325, Šaur 1975:238-239). 이때 삼원 체계 등장의 계기는 화자가 공간 속 대상들의 위치 결정의 유일한 중심이 되는, 화자의 자기중심 원칙의 발현이다(Колев 1991:65-66). 이 주장의 논거는 이러하다. 대부분의 불가리아어 삼원 정관사에 등장하는 *т-, н-, в-*어간은 지시사에서 시작되었고, 고대 슬라브어에서 주변적, 지엽적이던 *в-*어간 근칭지시사가 주류 *с-*어간을 대신해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이 15-16세기 세르비아-크로아티아-보스니아-몬테네그로어(이하 세-크-보-몬어) 지시사부터이다. 이에 대다수 학자의 주장처럼 15-16세기 이전에 불가리아어 정관사가 자리 잡았다면, 당시 근칭 지시사 및 정관사는 아직 *с-*어간이 주류였어야 한다. 그렇다면 한참 뒤에 세력을 넓힌 근칭 *в-*어간이 그렇게 빨리 세력을 넓혀 현재의 삼원 후치정관사 체계에서 주류로 자리 잡지 못했으리라는 것이다(Šaur 1975:238-239).

위 두 관점 중에는 전자가 더 많은 학자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자도 몇 가지 논리적 추론에 따라 전자의 관점을 지지한다.

첫째, 다른 언어의 정관사와 마찬가지로 지시사에서 기원한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후치정관사가 지시사와 마찬가지로 삼원 체계에서 시작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발생과정처럼 보인다. (18)에서도 삼원 지시사 지역에서 삼원 정관사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18)에서 보듯, 불가리아어 방언의 삼원 정관사에서는 남쪽 *с-*어간 근칭이 서쪽 *в-*어간 근칭보다 더 넓게 분포되어 있다. 뒤늦게 세력을 넓힌 *в-*어간 근칭이 적어도 불가리아어에서는 기존 *с-*어간을 압도하지 못했다.

셋째, 만약 15-16세기 불가리아어가 아직 표준화되지 않았던 마케도니아어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면 B-어간 근칭이 C-어간을 넘어선 것은 맞다. 하지만 15-16세기 널리 확산된 B-어간 근칭 지시사가 현대 세-크-보-몬어, 마케도니아어에서 주류로 자리 잡은 것을 보면, 마케도니아어, 불가리아어 B-어간 근칭 정관사가 같은 기간 주류로 자리 잡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넷째, 화자의 자기중심성에 기반하는 것은 인간 언어의 오랜 전통인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삼원 정관사 체계를 등장시켰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언어변화에서는 오히려 자기중심성이 약화되는 경향이 더 두드러진다. 여러 언어의 직시적인 지시사에서 비직시적인 정관사가 파생된 것이나, 직시사가 비직시 용법으로 확장되거나, 화자가 타인으로 직시중심을 옮기면서 직시투사(deictic projection)하는 등의 탈화자 경향을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다.

### 3.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명사구 한정성 표지의 정체성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명사구 한정성 표지의 정체성 또한 중요 논점이다. 명사나 수식어 뒤에 붙는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후치정관사는 그 독특한 형태-통사적 특징으로 인해 접사(affix), 소사(particle), 어미(ending), 접어(clitic), 형태소(morpheme) 등 다양한 범주로 분류된다(Elson 1976:277, 각주 2).

이 중에서도 두 남슬라브어 후치정관사가 후치접어(enclitic)인가, 접미사(suffix)인가, 즉 독립적 단어인가, 단어의 일부인가가 가장 핵심적인 논쟁거리라 할 수 있다. 흔히 대명사적 지시의 문법화 과정에서 위치가 유동적인 접어가 명사 뒤 고착된 접사로 발전하여 통사적 변이성을 상실하는 고정(fixation)의 과정을 겪는데(Lehmann 1985), 스칸디나비아어, 즉 북게르만어 후치정관사도 이러한 과정의 문법화를 거친 후 후치접어에서 접미사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7)</sup>

발생학적으로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후치정관사는 명사 앞 지시형용사가 명사 뒤에 놓이다가 음운적 침식(phonological erosion)을 거쳐 후치접어가 되었다. 예를 들어 15세기 판본부터 존재하는 13세기 문헌 “이반 릴스키의 민중적 삶(Народно житие на Иван Рилски)”의 고대 불가리아어 텍스트 (19a)를 현대 불가리아어 (19b)와 비교하면, 명사의 한정성 표지가 따로 분리된 접어(место то)로 기능하며 명사에 맞춰 격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sup>18)</sup>

- (19) a. 불. И придошж на место то, идеже\_ стоаше на камени сты отць Иоаннь, моля бога.
- b. 불. И дойдоха на мястото, където светият отец Иван стоеше на камък, молейки бога. (Мирчев 1973:203) (그들은 성스러운 사제 이반이 바위 위에 서 있던 그 장소에 와서 하느님께 기도했다.)

접어는 독립적 단어이므로, 후치정관사가 접어라면 통사적으로 독립된 선행 명사나 수식어의 어말 유성음은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에서 무성음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관사에 선행하는 명사에서 어말무성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선행 명사가 후행 정관사와 하나의 단어처럼 연결된다. 또한 보조어인 접어는 강세를 받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뒤에서 세 번째 음절(antepenult)에 강세가 있어 어말 후치정관사에 강세가 올 수 없는 마케도니아어는 논외로 하더라도, 강세가 불규칙한 불가리아어

17) 히멜만(Himmelman 2001:835-836)은 영어 정관사(예, the three little boys)는 전치접어(proclitic), 발리어 정관사(예, karanjang gede ne ‘lit. 바꾸니 큰 [정관사]’)는 후치접어(enclitic), 덴마크어, 루마니아어 정관사(예, huset ‘집’, lupul ‘늑대’)는 접미사로 규정하고, “매우 드문” 유형인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정관사는 제2위치 접어(second position clitic)로 본다.

18) 또한 (19a)에는 이탤릭체로 표시한 사격(камени, бога)이 아직 남아 있고, 현대 불가리아어에서 정관사 및 정관사의 잔재가 후접한 표현(където, светият)에 상응하는 어구 뒤에 정관사가 부재한다.

후치정관사는 градъ(도시), памятъ(기억), седемте(일곱 개) 등의 표현에서 선행 명사 대신 강세를 받기도 한다. 이와 같이 선행 명사 및 수식어와 음운론적으로 한 단어처럼 기능하는 마케도니아어, 불가리아어 후치정관사를 접어라고 하기 어렵다(Elson 1976:273-277).

다른 한편,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후치정관사는 한정적 표현이 단일 명사일 경우 명사에, 명사구일 경우 명사 앞 수식어에 붙는 등, 명사구 첫 단어 뒤라는 원칙에 따라 위치가 유동적이기 때문에(예 (10) 참고), 위치가 고정적인 접사와도 다르다(Scatton 1980:209). 바로 이런 이유로 많은 영미권 학자들은 두 남슬라브어 후치정관사를 접어라 칭한다. 또는 접어지만 접미사라 불릴 수 있다거나(Lunt 1952:41), 어원적으로는 접어지만 현재는 접사로 취급된다(Friedman 2001:20)는 등 접어와 접사 사이의 절충안이 등장하기도 한다.

현대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학계가 표준화한 문법에서 후치정관사는 독립 품사가 아니다. 대신 ‘한정성(определеност)’이 명사류의 문법범주 및 형태론 범주(불. *именна морфологична категория*)로 분류된다(Бояжиев et als 1999:469-474, Усикова 2000:75-82 등). 이에 따르면 명사, 형용사의 한정성 문법범주를 표현하는 후치정관사는 형태소가 된다. 단어에 새로운 어휘 의미를 부여하는 접사와 달리, 후치정관사는 단어의 문법적 특징을 표시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서로 상이하지만, 접사가 형태소의 일종임을 고려하면,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학계에서 후치정관사의 정체성은 접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접어와 접사의 문제가 문법화에 대한 평가라면 본 연구자 또한 두 남슬라브어 후치정관사가 접사에 가깝다고 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후치정관사는 이미 접어와 많이 다르며, 음운론적, 형태론적, 통사적으로 선행 명사 및 수식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접미사’, ‘접사’보다는 ‘한정성 문법범주를 표현하는 형태소’가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후치정관사의 정체성을 더 적절하게 표현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마케도니아어 삼원적 한정성 표지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도 있다(Бороникова 2010:60).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학자들을 위시한 연구자 대부분은 마케도니아어 삼원적 한정성 표지를 정관사로 보지만(Гълъбов 1962:63-65, Колев 1991:67, Конески 1957:26, Мирчев 1978:204, Усикова 2000:75-82, Цивьян 2005:139-151, Friedman 2001:20, 27, Mladenova 2007:319-325, Naylor 1981/1982:533, Šaur 1975:238-239 등), 일부 학자는 그것을 지시사의 특수한 형태, 즉 삼원 지시사 단형이라고 보기도 한다(Lunt 1952:41-43, Тополинска 2006 등).

미국 언어학자 룬트(Lunt 1952:41)는 마케도니아어 “삼원 접어(clitic)”가 삼원 지시사가 약화된 단형 지시사라고 본다. 장형 지시사가 대화참여자 와 대상 간 거리를 가리킨다면, 후치 단형 지시사는 선행 명사가 앞서 언급되거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임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폴란드 언어학자 토폴린스카(Тополинска 2006:13, Topolinjska 2014:179)는 -от만 마케도니아어 후치정관사이고, -ов, -он은 지시사 접어(clitic) 또는 지시소(демонстративен член)라고 본다. 이 두 그룹의 변별점은 문법화의 중요한 절차인 탈의미화(desemanticization)를 통한 직시 의미 상실 여부이다. 마케도니아어 화자원칭-청자근칭 지시사에서 기원한 -от는 직시 기능을 상실하고, 명사구가 가리키는 대상을 단지 청자가 식별할 수 있게 해준다. 화자근칭, 청화자원칭 지시사 овај, онај에서 기원한 -ов, -он는 직시 의미를 상실하지 않아, 청자가 대상을 식별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대상에 대한 화자의 물리적, 감정적 거리감도 드러낸다. 이러한 이유로 보통 고유명사에 붙지 않는 -от과 달리, -ов는 고유명사 뒤에도 자주 등장하고(예문 (5b) 참고), 매우 높은 수준의 문법화 단계에서 가능한 정관사의 총칭 의미는 -от만 표현할 뿐(예문 (7) 참고), -ов, -он은 표현하지 못한다.<sup>19)</sup>

19) 이것이 삼원적 후치정관사 모두에 적용되는 특징은 아니어서, 불가리아 남부 로도피 방언에서는 т-어간뿐 아니라, н-어간 후치정관사도 총칭으로 사용된다(Каневска-Николова 2005:21).

즉 마케도니아어 명사구의 삼원적 -OT, -OB, -OH이 친숙성, 유일성이 라는 한정성을 드러낸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OB, -OH에 덧붙여진 직시 의미가 지시사에서 정관사로의 문법화 과정의 종결성과 그 결과 획득되는 정관사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마케도니아어 명사구 후치 -OB, -OH이 비록 아직 완벽하게 탈의미화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한정성 표현이라는 정관사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여 지시사와 구별될 뿐 아니라, 그러한 직시 의미 잔존에도 불구하고 (1)의 한정성 문법화 단계, (4)의 한정성 위계에서도 높은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OT뿐 아니라 -OB, -OH도 마케도니아어 후치정관사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 4.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명사구 한정성 표지의 기원

유럽어 중에서는 2세기 고대 그리스어에 정관사가 처음 등장했고<sup>20)</sup>, 다른 유럽어 정관사는 고대와 중세 사이 유럽 민족들의 대이동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Mladenova 2007:2, Heine & Kuteva 2006:100).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에서 후치정관사가 언제 발생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최소 13세기 이전에 이미 지시사가 후치정관사로 전환되었다(Сване 1961, 1962, Мирчев 1978:201-203)고 보는 관점이 우세하다. 하지만 그 근거로 삼는 자료들이 원본 저작 후 수 세기가 지난 15-16세기 카피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두 남슬라브어 후치정관사가 15-16세기에 다른 언어의 영향으로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소수의견도 존재한다(Мирчев 1978:198).

오히려 좀 더 이른 시기에 남슬라브어 정관사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20) 한정성 표지의 가장 오래된 기록은 BC 2000년경 고대 이집트어이며, 이후 아랍어, 히브리어 등 중동의 다른 언어에 확산된 정관사가 유럽어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Putzu & Ramat 2001:113-127).

있다. 키릴, 메토디우스 시대 테살로니키 방언에는 정관사가 발견되지 않으나, 10세기 코덱스 수프라슬리엔시스(Codex Suprasliensis), 총독 요한(Йоан Екзарх)의 저술 등 고대 불가리아어 기념비들 속 다른 방언에서는 대용 기능의 후치 지시사가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그 시작을 10-11세기로 보기도 한다(Мирчев 1978:198-199, Dimitrova-Vulchanova & Vulchanov 2012). 다른 불가리아어 변화와의 상관관계에 기반한 추론을 통해 11세기 초 이미 모든 불가리아어 방언에 정관사가 나타났다고 보는 주장도 있다(Гълъбов 1962:72). 즉 불가리아어에서는 10-11세기 약화모음 ъ, њ의 상실이 시작되는데, 현대 불가리아어 남성 후치정관사의 형태는 한정성 표지가 약화모음 상실 전에 등장했음을 보여준다(Гълъбов 1962:65). 예를 들어 옛 문헌 속 рабѣ ѣ ‘(그) 노예’는 현대 불가리아어 рабѣь으로 이어지는데, (20a)와 같이 정관사가 먼저 명사 뒤에 붙은 후 약화모음이 상실되었다면, 형태소의 재해석을 통해 남성 후치정관사는 현재와 같이 -ѣь이 된다. (20b)와 같이 약화모음 상실이 먼저 일어났다면, 현대 불가리아어 남성 후치정관사도 여성 -та, 중성 -то, 복수 -те처럼 т로 시작해야 했겠지만, 이는 실제와 전혀 다르다.

- (20) a. рабѣ ѣ (지시사) > рабѣь (후치정관사) > рабѣь (약화모음 상실)  
 b. рабѣ ѣ (지시사) > рабѣ т (약화모음 상실) > \* рабѣь (후치정관사)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후치정관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도 중요한 논쟁거리다. 앞서 언급한 러시아어 북부방언의 소사 -то와 불가리아어 후치정관사가 기원을 같이 한다고 보고, 후기 원슬라브어에서 그 본원을 찾는 학자들이 있다(Гълъбов 1962:107-108). 또한 현재 지시사로 사용되지 않는 근칭 어근 -s가 현대 슬라브어 부사 어말에 널리 분포된 것이 슬라브어 후치 지시사가 이미 오래전에 존재했음을 드러내는 증거라 보기도 한다(Мирчев 1978:198). 러시아어 здесь(여기), 폴란드어 dziś(오늘), 체코어, 슬로바키아어 dnes(오늘), 체코어 letos(올해), 세크-보-몬어 danas(오늘), večeras(오늘 저녁), noćas(오늘 밤), jutros(오늘

아침), *letos/ljetos* (올여름) 등 명사 뒤에 근칭 어근 *-s*가 붙은 시간, 공간 부사가 적잖이 발견된다.<sup>21)</sup>

더 나아가 불가리아어에서 관사가 독립적으로 자생했다거나, 후치정관사는 불가리아어만의 특징으로 알바니아어, 루마니아어에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도 있으나(Асенова 2002:124), 이를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는 없다. 이러한 후치정관사의 슬라브어 자생설보다는 인접한 비슬라브어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고, 그리스어 영향설과 루마니아어 영향설이 대표적이다.

우선, 유럽에서 정관사가 가장 먼저 발생한 그리스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라틴 문화보다는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소위 이레체크 선(*Jireček Line*) 남쪽 불가리아, 북마케도니아의 명사구 한정성 표지도 그리스어의 영향으로 생겼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Mladenova 2007:345). 그리스어 성경 번역 중에 정관사가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에 도입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불가리아어 내부에서는 그리스와 가장 가까운 남쪽 로도피 방언에서 관사가 처음 시작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어는 발칸어 중 유일하게 정관사가 명사 앞에 놓이고, 다른 부분에서는 그리스어와 비슷한 어순을 유지하는 불가리아어 번역본이 유독 지시사만 그리스어와 달리 ‘명사 + 지시사’의 어순을 취한 점(Мирчев 1978:198-199)은 그리스어 기원설에 의구심을 품게 한다.

이에 후치정관사를 가진 발칸어에서 그 근원을 찾는 움직임이 있고, 특히 원슬라브어적 특징인 삼원 지시사 및 삼원 정관사가 아직 남아 있는 불가리아어 남서부와 거리가 멀어, 그 지역에 파급력이 약했으리라

21) 이러한 현상은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에서 더욱 두드러져, 시간명사 뒤에 화자근칭 어근 *-с, -в*, 화자원칭-청자근칭 *-г*가 붙은 부사가 매우 많이 발견된다: 불가리아어 부사 *днес*(오늘), *лятос*(올여름), *зимас*(올겨울), *пролетес*(올봄) (Мирчев 1978:198, Асенова 2002:135), *есенес*(올가을), *вечерта*(저녁에), *есента*(가을에) 등. 마케도니아어 *денес*(오늘), *годинава*(올해), *утринава*(오늘 아침), *зимава*(올겨울), *летово*(올여름) (Adamou 2011:885), *пролетва*(올봄), *есенва*(올가을), *вечерва*(오늘 저녁), *ноква*(오늘밤), *нокта*(지난밤) 등.



추정할 수 있는 루마니아어의 영향으로 남슬라브어 후치정관사가 생겼다는 가설(Гълъбов 1962:63-64, Асенова 2002:126)이 유력하다. 루마니아어 후치정관사는 ‘형용사 + 명사’에서 ‘명사 + 형용사’로 어순이 바뀐 후<sup>22)</sup>, (21)와 같이 형용사의 전치정관사가 명사의 후치정관사로 재해석되며 발생했다고 추정된다(Асенова 2002:126-127). 지시사를 정관사처럼 사용하여 된 라틴어의 Homo ille bonus(좋은 사람)를 서라틴어에서는 [Homo] [ille bonus] ‘사람 [정관사]좋은’으로, 동라틴어에서는 [Homo ille] [bonus] ‘사람[정관사] 좋은’으로 해석했다는 것이다(Putzu & Ramat 2001:126). 이 논리에 따르면 불가리아어 내부에서는 정관사가 북동부 모이시아 방언(Мизийски говори)에서 다른 지역으로 점차 퍼져나간 것이 된다.

(21) 루. omil batrin (‘사람[정관사] 늙은’)

< om il batrin (‘사람 [정관사] 늙은’)

더 나아가, 특정 이웃 언어의 영향보다는 발칸 언어연합(Sprachbund) 전체의 맥락, 그중에서 상호 유사성의 정도가 높은 루마니아어, 알바니아어와의 관계 속에서 불가리아어 정관사의 근원을 찾기도 한다. 특정 언어가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개별 원시어(proto-language)에서 계승한 특징들, 서로 다른 곳에서 기원한 다양한 영향들, 이웃 언어 모델의 모방, 다방면에 걸친 발칸어들의 상호작용 등 복합적 요소를 통

22) 루마니아어와 마찬가지로 라틴어에서 진화한 로망스어인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는 ‘명사 + 형용사’ 어순이 일반적이다. 한편 발칸어 후치정관사가 더 오래되고 근원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Асенова 2002:126-129). 예를 들어, 현대 알바니아어 정관사는 명사 뒤와 형용사 앞에 위치하는데, 역사적 문헌을 살펴보면 (iv)처럼 정관사 i가 전혀 붙지 않은 형태에서 명사 뒤에만 붙은 형태를 거쳐, 명사 뒤와 형용사 앞에 붙은 현재 형태로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알. pus*i* i thellë (깊은 우물 ‘우물 [정관사] 깊은’) < pus-i thellë < pus thellë (Асенова 2002:127)

해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다(Асенова 2002:126).

이러한 다양한 변인을 통해 형성된 발칸어 정관사의 공통된 특징 (Ревзин 1977a:211-217)으로는 첫째, 한정적 명사구만 가능한 구조와 비한정적 명사구만 가능한 구조가 존재한다. 불가리아어를 예로 들면 (22)의 화제, 재귀대명사구, 강조적 여격 대명사 반복이 한정적 명사구만 가능한 구조, (23)의 존재문이 비한정적 명사구만 가능한 구조이다.

- (22) a. **불. Момчето / Ион / Той / \*Момче** е на мене. ((그)소년/이 온/그/\*소년은 내 아이이다.)
- b. **불. При цялата си стромност Петър / той / студентът / \*студент / \*един студент** не успя да премълчи. (자신의 겸손함으로 페터르/그/(그) 대학생/\*대학생/\*한 대학생은 침묵할 수 없었다.)
- c. **불. Какво му е на Петър / него / момчето / \*момче?** (페터르 / 그 / (그)소년 / \*소년에게 무슨 일이야?) (Ревзин 1977a:211-212)
- (23) **Имаше един човек стопанин.** (Ревзин 1977a:212) (한 주인이 있었다.)

둘째, 비한정적 격형태 수가 한정적 격형태 수를 넘어설 수 없다. 격이 거의 사라진 불가리아어에도 남성 후치정관사에는 제한적으로 사격과 주격을 구별하는 형태적 표지가 남아 있다((10) 참고). 즉 불가리아어 남성 명사구는 비한정적 격형태가 하나, 한정적 격형태가 둘이다.

셋째, 총칭 표현에서 보편적 총칭(универсальное значение)엔 정관사가 필수적이지만(24a), 제한-일반적 총칭(ограничено-обобщенное значение)엔 정관사 사용이 선택적이다(24b).

- (24) a. **불. Заекът е животно.** (토끼는 동물이다.)
- b. **불. Заекът / Заек**, който е ранен, е лесна прячка за кучетата. (상처 입은 토끼는 개들의 쉬운 먹잇감이다.) (Ревзин 1977a:215)

불가리아어 문헌 분석에 따르면, 동북부 모이시아 방언은 화용적 한정성 혁신에 앞장섰고, 남부 로도피 방언은 이후 의미적 한정성 혁신의 선두에 섰다(Mladenova 2007:367). 이 또한 일방향적 외부 영향이 아니라, 여러 언어의 상호작용 속에서 불가리아어 정관사가 발생하고 발전했다는 가설을 뒷받침한다. 발칸어 중 그리스어에서 정관사가 가장 먼저 등장했다 하더라도, 다른 발칸어 한정사와 구조적 차이가 두드러지고, 루마니아어 정관사가 불가리아어 정관사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더라도, 한정성 표지의 시작과 영향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자도 절충형 가설에 지지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한정성은 슬라브어족보다는 발칸어 언어연합의 틀에서 고찰해야 하는 언어현상인 것이다.

## 5.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명사구 한정성 표지와 격 표지

화용적 한정성 표지의 등장과 명사류의 형태론적 격 상실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Lyons 1999:324) 또한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명사구 한정성에 관련된 매우 흥미로운 질문이다. 고전 그리스어, 현대 독일어처럼 격변화 형태와 정관사가 공존하는 예도 있지만, 게르만어, 로망스어에서 한정성 표지 등장이 대체로 명사류의 격변화 체계 상실을 동반했고(Putzu & Ramat 2001:128), 이는 불가리아어<sup>23)</sup>도 마찬가지였다(Mladenova 2007:134-135, 243).

사실 불가리아어 명사류의 격변화 상실이 한정성 표지 등장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 문헌 속 불가리아어에서는 복수가 단수보다, 중성, 여성이 남성보다, 비활성이 활성보다 더 먼저 격을 상

23) 본절에서는 선행연구 접근성 문제로 인해 불가리아어에 대해서만 기술하지만, 역사적 기술에서 불가리아어는 많은 경우 마케도니아어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20세기 중반 표준화 이전 자료가 풍부하지 않은 마케도니아어도 유사한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하는(Mladenova 2007:134) 등 그 과정이 점진적으로 진행됐고, 13-14세기 복수 어미의 성이 사라지기 전에 정관사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Мирчев 1978:202). 이것이 단지 기존 규범을 지키려는 문어의 보수성이 발휘된 결과이고, 실제 언중의 말은 이와 괴리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저작되거나 발견된 고대, 중세 불가리아어 문헌에서 꽤 오랫동안 선행 명사와 후치정관사는 격변화한다(Гълъбов 1962, Мирчев 1978, Сванс 1962, Dimitrova-Vulchanova & Vulchanov 2012 등의 예문 텍스트 참고). 즉 후치정관사의 등장이 격변화 상실의 직접적 원인이 되거나, 격변화 상실이 후치정관사 등장의 직접적 원인이 되지는 않았다.

또한 후치정관사가 높은 수준으로 문법화된 현대 불가리아어에도 격변화형이 일부 잔존한다. 우선 현대 불가리아어 표준어와 지역방언의 활성명사에 호격이 남아 있다. 예를 들어, господин(신사), госпожа(숙녀)는 호칭일 때 господине!, госпожо!가 된다. 현대 불가리아어 지역방언에는 그 밖의 다른 사격 형태도 남아 있는데, 가장 흔한 것은 과거 단수 남성명사의 활성 대격을 표시했던 어미 -а로, 소피아 인근 피르도프(Пирдоп)부터 그 동쪽 방언들과 중앙 발칸 방언의 인간 지시 명사에서 주로 발견되며, 서남 방언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서부 방언에서는 여성 단수 대격 어미 -у가 부분적으로 사용된다(Стойков 2002:228-229).

이와 같이 불가리아어 명사구의 한정성 표지가 형태론적 격의 상실로 대표되는 분석어화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격변화형을 거의 상실하고 분석어화된 구조에서 한정성 표지는 과거에 형태론적 격이 수행하던 문장 내 통사적 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Асенова 2002:124, Putzu & Ramat 2001:128). 무엇보다도 현대 불가리아어 남성 후치정관사 형태는 명사류의 사격과 직격을 구분한다. 또한 관사 자체가 어순과 더불어 격의 기능을 대신하며 통사적 중의성을 제거하기도 한다(Асенова 2002:137). (25a)에서는 정관사 있는 단어가 어순과 관계없이 주어가 되고, (25b)에서 정관사 있는 단어는 1차 대격, 정관사 없는 단어는 2차

대격이 되며, (25c)에서 정관사 있는 형태는 수식 형용사만 되지만, 정관사 없는 형태는 부사도 될 수 있다.

- (25) a. **불. Кучето** е артист. — **Куче** е артист**ът**. (개는 예술가이다. — (그) 예술가는 개다.)  
 b. **불. Индианец**а го рисувам. — **Индианец** го рисувам. (난 인디언을 그린다. — 난 그를 인디언으로 그린다.)  
 c. **불. По ливадата** тича **босо** дете. — По ливадата тича **босото** дете. (아이가 풀밭을 맨발로 뛰어다닌다. — 맨발의 아이가 풀밭을 뛰어다닌다.) (Асенова 2002:137)

관사 없는 슬라브어 중에서도 분석화가 많이 진행된 체코어 구어에서 지시사 *ten*이 정관사로 기능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다. 하지만 그 관사형(*articoloid*) 지시사 *ten*이 (25)와 같은 통사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보고는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비록 직접적 인과관계는 없다 하더라도, 여러 슬라브어에서 격의 상실 및 통합, 또는 분석어화가 한정성 문법화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여전히 흥미로운 연구 과제이다.

## 6.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명사, 형용사의 한정성 vs. 동사의 한정성 표지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의 “(비)한정적인”을 의미하는 형용사 (*не*)определенен이 명사, 형용사의 한정성을 나타낼 때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어떤’을 의미하는 *ня-* (*някой, някакъв* 등), *еди-* (*еди-кой, еди-какъв* 등), *-годе* (*кой-годе, какъв-годе* 등), *да е* (*кой да е, какъв да е* 등) 등이 붙은 불가리아어 대명사는 비한정 대명사(*неопределителни местоимения*)라 불린다. 대용 기능으로 특화된 품사인 대명사는 본질적으로 한정적

이기 때문에, 한정 대명사는 따로 없다.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4개의 과거시제, 즉 아오리스트(aorist), 미완료(imperfect), 완료(perfect), 대과거(pluperfect) 중 완료 과거시제는 불가리아어로 минало неопределено време(비한정 과거)라 불린다. 아오리스트(минало свършено време, 예, *четох* ‘입었다’)는 구체적 과거 시점에 수행한 행위, 과거에 한 번 수행한 행위를 지시하고, 미완료(минало несвършено време, 예, *четях*)는 특정한(=한정적) 과거 시점의 과정적 행위, 동시적 행위들, 습관적이고 반복된 행위를 지시하고, 완료시제(예, *чел съм*)는 수행 시간이 특정되지(=한정적이지) 않은 발화시간 이전의 행위, 발화 시간에 결과가 존재하는 시간적으로 비한정적인 과거의 행위, 일반적 사실을 나타내는 시간적으로 비한정적인 과거의 행위를 지시하며, 대과거(минало предварително време, 예, *бях чел*)는 다른 과거 행위에 선행한 행위나 행위 결과를 지시한다. 대과거는 다른 차원이므로 논외로 할 때, 사건이 시간축 상의 특정 시점을 차지하는 아오리스트, 미완료 과거는 온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한정적 과거가 되고, 시간축 상의 특정 시점을 차지하지 않는 완료 과거는 비한정 과거가 된다. 이에 마케도니아어에서는 아오리스트를 ‘한정적 완료 과거’(минато определено свършено време), 미완료 과거를 ‘한정적 미완료 과거’(минато определено несвършено време)로 부르기도 한다.

또한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에는 증거범주도 있어서 화자가 간접 경험한 것은 완료 과거(예, *чел съм*)나 재서술(renarrative) (예, *чел*) 형태로 따로 구분해서 표현한다.

이러한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동사의 특징은 명사구의 한정성 및 특정성과 상호작용하기도 한다. 불가리아어 예문 (26a)은 부정관사 една를 통해 청자에게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화자는 알고 있는 특정 여성의 행위를 표현하고, (26b)는 불특정 여성, 즉 단순히 남자가 아닌 여자가 행위주임만을 표현한다. 이때 (26a)의 동사는 ‘한정적 과거’인 아오리스트, (26b)의 동사는 화자의 직접경험이 아니라 결과에 따른 추

론을 나타내는 완료 과거로 표현되었다.

(26) a. **불.** Това стихотворение го **написа** една жена.

b. **불.** Това стихотворение го **е написала** жена.

(Heine & Kuteva 2006:129) (이 시를 한 여자/여자가 썼다.)

또한 직접 목적어의 한정성이 동사 상(aspect)과 상호작용하기도 한다. 불가리아어 동사 상과 과거시제의 관계에서 불완료상-미완료과거, 완료상-아오리스트 쌍이 가장 빈번한데(Kabakčiev 1984:650)<sup>24</sup>, 직접 목적어가 한정적일 때, 불완료상은 매우 어색하여, (27)의 완료상-아오리스트만 온전한 문장이 된다(Kabakčiev 1984:655,664)<sup>25</sup>. 종결된 일회적 사건을 표현하는 완료상-아오리스트의 한정성이 직접 목적어의 한정성과 충돌하지 않기 때문이다.

(27) **불.** Момчето **хвърли**<sub>perf. aor.</sub> / \***хвърля**<sub>imperf. aor.</sub> / \***хвърляше**<sub>imperf. imp.</sub> **камък**. ((그) 소년이 (그) 돌을 던졌다.) (Kabakčiev 1984:655, 664)

두 남슬라브어 명사구 한정성과 동사구 한정성은 대체로 문법 차원보다 텍스트 차원에서 상호작용한다. (28)의 예문은 어떤 마케도니아어 동화 도입부의 3가지 버전인데, 진하게 표시한 것은 비한정 동사(즉, 재

24) 불완료상-아오리스트는 일정 기간 지속되다 완결된 행위, 완료상-미완료과거는 완결된 행위의 비한정 반복을 표현한다.

25) 한정적 돌 하나를 한 번 던지는 행위는 순간적 사건으로 인지되므로 (27)의 불완료상-미완료과거, 불완료상-아오리스트는 비문이 된다. 한정적 돌 하나를 반복적으로 던지는 것은 부자연스러우므로 (27)에 부재하는 완료상-미완료과거 **хвърлеше**도 비문을 만들 것이다. 하지만 (v)의 종속절처럼 특정한 고양이 한 마리를 반복적으로 목격하는 사건은 가능하고, 완료상-미완료과거 **видеше**도 자연스럽다.

(v) **불.** Момчето **хвърляше** <sub>imperf. imp.</sub> **камък**, щом **видеше** <sub>perf. imp.</sub> **котката**. ((그) 고양이를 볼 때마다, (그) 소년은 돌을 던지곤 했다) (Kabakčiev 1984:663)

서술, 완료과거)와 한정 명사구 표지이고, 진하게 표시하고 밑줄을 덧붙인 것은 한정 동사(즉, 아오리스트)와 한정 명사구 표지이다. (28a), (28b)는 주어-동사쌍 4 중 1 경우, (28c)는 주어-동사쌍 4 중 3 경우가 명사구와 동사의 한정성이 서로 일치한다.

- (28) a. 마. ① Си **бил**, **некој**с си цар турски. ② Царо<sub>s</sub> турски Сулејман се **викал**. ③ **Имал**, **ена** ќерка царо<sub>v</sub>, турски. ④ Ќерка му од царот<sub>v</sub> турски **е побарал**, Црна Арапина, да ја земаг за жена...(어떤 튀르크 왕이 있었다. 튀르크 왕의 이름은 술탄이만이었다. (이) 튀르크 왕에게는 (저) 딸이 있었다. 검은 아랍인이 (그) 튀르크 왕에게 그의 딸을 아내로 달라고 요청했다.)
- b. 마. ① Е, **беше**, **некој**с цар турски. ② Царо<sub>v</sub>, турски **имаше**, **ена** ќерка... ③ Е, арно, ама **е суми**, Црна Арапина, оту царо<sub>v</sub>, турски најубаа ќерка **имал**, во светов... (어떤 튀르크 왕이 있었어. (이) 튀르키예 왕에게는 (저) 딸이 있었어. 하지만 검은 아랍인은 (저) 튀르크 왕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이 있다고 생각했다.)
- c. 마. ① Си **беше**, царот<sub>v</sub> турски, **с'имаше**, **ена** ќерка. ② Сулејман цар. ③ Арно, ама ќерка му му **е побарал**, **некој**с, Арап. ④ Побарвсјње Арапот<sub>v</sub> и таа<sub>s</sub>, **велела**,... ((그) 튀르크 왕이 있었고, (저) 딸이 있었어. 술탄이만 왕. 하지만 어떤 아랍인이 그에게 그의 딸을 달라고 했다. (그) 아랍인은 피부색이 좀 어두웠고, 그녀는 말했다.) (Цивьян 2005:149)

(28c)에는 직시성이 강한 **н-**, **в-**어간 후치정관사가 없지만, (28b)에는 원칭 **н-**, 근칭 **в-**어간 정관사가 3회, (28a)에는 근칭 **в-**어간 정관사가 1회 등장한다. 즉 (28c)의 서술자는 서술 대상에 대해 보다 객관적 태도를 취하고, (28b)의 서술자는 좀 더 강한 감정을 드러낸다.

이때 근칭 **в-**어간 정관사는 주어진 묘사가 주인공의 내적 관점, 원칭



n-어간 정관사는 서술자의 외적 관점임을 나타낸다. (28b) ②의 근칭 관사 царов와 한정적 아오리스트 имаше에서 ③의 원칭 관사 царон과 비한정적 재서술 имал로의 전환은 주인공에서 서술자로 시점 이동을 보여준다. 상이한 두 관점은 두 문장 사이 원칭 직시사 сна의 삽입을 통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때 ③의 원칭 царон, 비한정 имал은 언뜻 근칭 во светов(이 세상에)와 충돌하는 듯 보이지만, 이것은 서술자의 세계와 서술되는 세계가 동일함을 드러내는 장치로 작용하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

한편 한정적 과거인 아오리스트가 사용되지 않은 (28a)는 옛날이야기 느낌이 강하고, 아오리스트로 시작하는 (28b), (28c)는 실제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이와 같이 명사구의 한정성과 동사구의 한정성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화자 또는 서술자와 청자 혹은 독자, 그리고 이야기 속 등장인물 사이의 거리를 조절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층위의 한정성은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뿐 아니라, 더 나아가 발칸어에 특징적인 “자아와 타자의 복잡한 직조”(Цивьян 2005:141)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 III. 결론

본고에서는 후속연구로 진행될 여러 슬라브어 문어, 구어 텍스트 한정성 분석에 앞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문법화된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명사구 한정성 표지와 관련된 주요 사실들과 이론적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연구자의 관점과 그 근거를 밝혔다.

첫째, 일반언어학 차원에서 명사구 한정성의 문법화 수준을 측정하는 다양한 기준, 즉 직시성의 상실, 연상적 대응, 의미적 한정성, 총칭성 지시 등의 조건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한정성 조건을 거의 모두 만족시키는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명사구의 후치정관사는 다른 유럽어와 비교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문법화되어 있다.

둘째,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후치정관사는 일원 또는 삼원 체계를 형성하는데, 역사적으로 일원 정관사에서 삼원 정관사로 발전한 것인지, 삼원 정관사에서 일원 정관사로 발전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원슬라브어 또는 공통슬라브어 삼원 지시사에서 발전한 것이 두 언어의 정관사이고, 일원 정관사에서 삼원 정관사로 변화한 동기가 설득력이 약하기 때문에 삼원 정관사에서 일원 정관사로 발전했다는 가설이 더 적절해 보인다.

셋째,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후치정관사의 정체성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여, 우선 역사적으로 후치접어였던 두 남슬라브어 후치정관사가 여전히 독립적 단어인 접어인가, 아니면 문법화가 더 진행되어 이제 단어의 일부가 된 접사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다. 현대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후치정관사는 한정성 문법범주를 표시하는 명사류의 형태소로서 접사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시성을 가진 삼원 후치정관사를 진정한 정관사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아직 한정성 문법화가 완료되지 않은 지시사 단형에 불과한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삼원적 한정성 표지가 지시사처럼 직시성을 표시하더라도, 친숙성과 유일성 표현이라는 정관사의 기본 기능 또한 수행하기 때문에, 정관사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넷째,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후치정관사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가설이 존재한다. 유럽어 중 가장 먼저 정관사가 등장한 남쪽의 그리스어 또는 구조적으로 유사한 후치정관사를 가진 동북쪽의 루마니아어에서 나왔다는 주장이 가장 유력하다. 두 남슬라브어 후치정관사는 이들 언어와 공통점을 공유함과 동시에 자신만의 변별성도 가지기 때문에, 발칸어 언어연합 속 여러 언어 간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다.

다섯째,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명사구 한정성 표지 획득이 격표지 상실과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여섯째,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명사구 한정성이 동사의 한정성과 상관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존재한다. 이것들 사이에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정적 근거는

부재하지만, 어느 정도 서로 연관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후치정관사를 둘러싼 여러 논쟁이 명확한 답으로 귀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특히 역사 관련 논쟁은 과거 문헌의 부족으로 대부분 추론에 기반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의견이 난립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의 다양성은 고도로 문법화된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후치정관사가 여전히 매우 흥미로운 연구과제라는 방증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가 슬라브어 중 유일하게 한정성이 문법화된 언어이고, 이웃하는 발칸어들과 상호작용하며 그러한 특수성을 획득하였다는 것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특히 명사구의 한정성 표지가 다른 슬라브어와도 구별되고, 다른 발칸어와도 구별되는, “발칸 슬라브어”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만의 가장 중요한 변별적 특징임도 부정할 수 없다.

본고에서 살펴본 현대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후치정관사의 특징과 여러 이론적 논점을 바탕으로, 이어지는 후속 논문에서는 현대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문어, 구어 텍스트를 ‘개념 유형과 한정성 (Concept Types and Determination)’ 이론의 틀에서 분석하며 슬라브어 한정성의 문법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 ■ 참고문헌

- Adamou, Evangelia(2011), “Temporal uses of Definite Articles and Demonstratives in Pomak (Slavic, Greece),” *Lingua* 121(5), 879-889.
- Chvany, Catherine V.(1983), “On ‘Definiteness’ in Bulgarian, English and Russian,” *American contributions to 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Slavists: Kiev, September 1983. Vol. I: Linguistics*, ed. by Michael S. Flier, Columbus, Ohio: Slavica, 71-92.
- Cummins, George M, III.(1998), “Definiteness in Czech,” *Studies in language* 22, 567-596.
- Czardybon, Adrian(2017), *Definiteness in a Language without Articles – A Study on Polish*. Düsseldorf: Düsseldorf University Press.
- De Mulder, Walter & Anne Carlier(2011), “The grammaticalization of definite articles,” *The Oxford handbook of grammaticalization*, ed. by Heiko Narrog & Bernd Heine, Oxford: Oxford Univ. Press, 522-535.
- Diessel, Holger(1999), *Demonstratives. Form, function, and grammaticalization*, Amsterdam/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Dimitrova-Vulchanova, Mila & Valentin Vulchanov(2012), “An article evolving: The case of Old Bulgarian,” *Grammatical Change. Origins, Nature, Outcomes*, ed. by D. Jonas, J. Whitman, A. Garrett, Oxford, 160-178.
- Dixon, R. M. W.(2003), “Demonstratives: A cross-linguistic typology,” *Studies in Language* 27(1), 61-112.
- Dryer, Matthew (2015a), “Feature 37A: Definite Articles,” *The World Atlas of Language Structures Online (WALS)*.  
<http://wals.info/feature/37A#2/25.5/148.2> (검색일: 2025.1.10.)

- Dryer, Matthew (2015b), "Feature 38A: Indefinite Articles." In: *The World Atlas of Language Structures Online (WALS)*.  
<http://wals.info/feature/38A#2/25.5/148.2> (검색일: 2025.1.10.)
- Dvořák, Jan(2020), "The emerging definite article ten in (informal spoken) Czech: a further analysis in terms of semantic and pragmatic definiteness," *Naše řeč* 103, č.4, 297-319.
- Elson, Mark J.(1976), "The Definite Article in Bulgarian and Macedonian," *The Slavic and East European Journal* Vol. 20, No.3 (Autumn 1976), 273-279.
- Flier, Michael S.(1974), *Aspects of Nominal Determination in Old Church Slavic*, The Hague/Paris: Mouton.
- Friedman, Victor(2001), *Macedonian*, SEELRC.
- Greenberg, Joseph(1978), "How Does a Language Acquire Gender Markers?," *Universals of Human Language*, ed. by Joseph Greenberg,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47-82
- Hanks, Williams. F.(2011), "Deixis and indexicality," *Foundations of Pragmatics*, ed. by W. Bublitz & N. Norrick, Berlin, New York: De Gruyter Mouton, 315-346.
- Haspelmath, Martin(1999), "Explaining Article-Possessor Complementarity: Economic Motivation in Noun Phrase Syntax," *Language* 75, 227-243.
- Hawkins, John(1991), "On (In)definite Articles: Implicatures and (In) grammaticality Prediction," *Journal of Linguistics* 27, No 2, 405-442.
- Heine, Bernd & Tania Kuteva(2002), *World Lexicon of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Univ. Press.
- Heine, Bernd & Tania Kuteva(2006), *The Changing Languages of Europ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immelmann, Nikolaus(1996), "Demonstratives in Narrative Discourse: A Taxonomy of Universal Uses," *Studies in Anaphora*, ed. by Barbara Fox, Amsterdam, Philadelphia: John Benjamins, 205–254.
- Himmelmann, Nikolaus(2001), “Articles”, *Language Typology and Language Universal*, ed. by Martin Haspelmath, Ekkehard König, Wulf Oesterreicher, Wolfgang Raible, Berlin/NewYork: de Gruyter, 831–841.
- Ionin, Tania(2006), “This is Definitely Specific: Specificity and Definiteness in Article Systems,” *Natural Language Semantics* 14(2), 175–234.
- Kabakčiev, Krasimir(1984), “The Article and the Aorist/Imperfect Distinction in Bulgarian: an Analysis Based on Cross-language ‘Aspect’ Parallelisms”, *Linguistics* 22/5, 643–672.
- Krámský, Jirí(1972), *The Article and the Concept of Definiteness in Language*, The Hague. Paris :De Gruyter Mouton.
- Kresin, Susan C.(2002), “Demonstratives, Definite Articles and Clines of Grammaticalization: Evidence from Russian and Spoken Czech,” *Where One’s Tongue Rules Well, A Festschrift for Charles E. Townsend*, ed. by Laura A. Janda, Ronald Feldstein, Steven Franks, Indiana Slavic Studies, Vol. 13, 63-73.
- Lechmann, Christian(1985), “Grammaticalization: Synchronic Variation and Diachronic Change,” *Lingua e stile* 20(3), 303-318.
- Löbner, Sebastian(2011), “Concept Types and Determination,” *Journal of Semantics* 28(3), 279–333.
- Lunt, Horace G.(1952), *A Grammar of the Macedonian Literary Language*, Skopje.
- Lyons, Christopher(1999), *Definitene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ušič, Franc & Rok Žaucer(2007), "On the Adjectival Definite Article in Slovenian," *Pismo* 5(1), 102-124.
- Mladenova, Olga M.(2007), *Definiteness in Bulgarian: Modelling the Processes of Language Change*, Walter de Gruyter.
- Naylor, Kenneth E.(1981/1982), "The Use of the Articles in Macedonian and English," *Македонски Јазик XXXII/XXXIII*, 533-539.
- Naylor, Kenneth E.(1983), "On Expressing "Definiteness" in the Slavic Languages and English," *American Contributions to the 9th International Congress of Slavists* (Kiev1983) Vol.1: Linguistics, ed. by M. S. Flier, Columbus, Ohio: Slavica, 203-220.
- Ortmann, Albert(2014), "Definite Article Asymmetries and Concept Types: Semantic and Pragmatic Uniqueness," *Frames and Concept Types :Applications in Language and Philosophy*, ed. by Thomas Gamerschlag, Doris Gerland, Rainer Osswald, Wiebke Petersen, Basel: Springer, 293-321.
- Putzu, Ignazio & Paolo Ramat(2001), "Articles and Quantifiers in the Mediterranean Languages: a Typological Diachronic Analysis", *Aspects of Typology and Universals*, ed. by W. Bisang, Berlin: Akademie, 99-132.
- Roberts, Craige (2003), "Uniqueness in Definite Noun Phrases," *Linguistics and Philosophy* 26(3). 287-350.
- Runić, Marija(2013), "The 'Definite Article' in the Slovene Dialect of Resia," *Atlante Sintattico d'Italia*, n.16, 91-106.
- Scatton, Ernest A.(1980), "On the Shape of the Bulgarian Definite Article," *Morphosyntax in Slavic*, ed. by Christine Chvany, Richard Brecht D., Slavica Publishers, Inc., 204-211.
- Schroeder, Christophe(2006), "Articles and Article Systems in Some

- Languages in Europe,” *Pragmatic Organization of Discourse in the Languages of Europe*, ed. by G. Bernini, Berlin: Mouton de Gruyter, 546-611.
- Sonnenhauser, Barbara(2009), “The Macedonian Tripartite Article: a Discourse-oriented Account”, *Македонски Јазик* LX, 123–136.
- Šaur, Vladimir(1975), “O významu zajmenného základu OV- a jeho vztahu k bulharskému a makedonskému članu,” *Slavia* 44/3: 233–239.
- Topolinjska, Zuzanna(2014), “Definiteness (Synchrony),” *The Slavic Languages*, ed. by Sebastian Kempgen, Peter Kosta, Tilman Berger, Karl Gutschmidt, Berlin/New York: de Gruyter, 176–187.
- Асенова, Петя(2002), “Задпоставен определителен член,” *Балканско езикознание*, Велико Търново: Фабер, 123-140.
- Бороникова, Наталија(2010), “За така наречените „двојноопределени“ именски синтагми во современиот македонски јазик,” *Македонски јазик* LXI, 59-72.
- Бояжиев, Тодор и Иван Куцаров, Йордан Пенчев(1999), *Съвременен български език*, София: Петър Берон.
- Гак, В. Г.(1988/2016), “Определенность и неопределенность. Артикль,” *Русский язык в сопоставлении с французским*, М.: URSS, 27-51.
- Головачева, А. В.(1979), “Идентификация и индивидуализация в анафорических структурах,” *Категория определенности–неопределенности в славянских и балканских языках*, М.: Наука, 175–203.
- Гълъбов, Иван(1962), *Проблемът за члена в български и румънски език*, София: Българската академия на науките.
- Гълъбов, Иван(1986), “Някои въпроси, свързани с непълната членна



форма за мъжки род единствено число,” *Избрани трудове по езикознание*, София: Наука и изкуство, 338-343 / (1979), *Изследвания върху историята и диалектите на българския език (Сборник в паметна чл.-кор. Кирил Мирчев)*, София, 115-119.

Каневска-Николова, Елена(2005), “Към въпроса за обусловността на тройното членуване в родопските говори”, *Български език* 2005/2, 15-22.

Касаткина, Р. Ф.(2008), “Артикли, предартикли и псевдоартикли в славянских языках,” *Славянское языкознание: XIV Международный съезд славистов, Охрид, 10-16 сентября 2008г.: доклады российской делегации*, Москва: Индрик, 305-321.

Колев, Георги(1991), “Наблюдения върху членната форма в българските народни говори,” *Език и литература* XLVI, 4, 63-72.

Конески, Блаже(1949), “Прилепскиот говор,” *Годишен зборник на Филозофскиот факултет* 2.1, 245-301.

Конески, Блаже(1957), “Тројниот член,” *Македонски Јазик* VIII, 26-28.

Конески, Блаже(1953/1967), *Граматика на македонскиот литературен јазик*, Скопје: Култура, 225-236.

Львов, Андрей Степанович(1966), *Очерки по лексике памятников старославянской письменности*, Москва: Наука.

Мирчев, Кирил(1978), *Историческа граматика на българския език*, София: Наука и Изкуство.

Ревзин, И. И.(1977а), “Вопросы структурно-типологического подхода к категории определенности в балканских языках,” *Балканский лингв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М.: Наука, 208-219.

- Ревзин, И. И.(1977b), “Анкета по категории определенности -неопределенности,” *Балканский лингв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М.: Наука, 220-242.
- Сване, Гуннар(1961), “О синтаксическом применении болгарского члена в XVIII веке. А. Чергедские тексты,” *Scando-Slavica* 7, 233-251.
- Сване, Гуннар(1962), “О синтаксическом применении болгарского члена в XVIII веке. Б. Добрейшово евангелие,” *Scando-Slavica* 8, 224-238.
- Станков, Валентин(1995), “Семантични особености на категорията неопределеност на имената в българския език,” *Проблеми на граматичната система на българския език*. София: Академично издателство «Проф. Марин Дринов», 87-150.
- Стойков, Стойко(2002), *Българска диалектология*, София: Акад. изд. "Проф. Марин Дринов", 231-232.
- Тополињска, Зузана(1981/1982), “Мак. еден – неопределет член?,” *Македонски Јазик XXXII/XXXIII*, 705-715.
- Тополињска, Зузана(2006), “Тројниот член: Да или нет?,” *Јужнословенски филолог* 62, 7-15.
- Усикова, Рина П.(2000), *Македонскиот јазик: граматическиот очерк, тексты для чтения с комментариями и словарем 1*, Скопје: Филолешки факултет "Блаже Конески".
- Цивьян, Т. В.(2005), *Модель мира и ее лингвистические основы*, Москва: URSS.

❖ ABSTRACT

Theoretical Issues on Grammaticalization of the  
Bulgarian and Macedonian Postpositional Definite  
Articles

Chung, Jungwon  
Chungbuk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some important facts and theoretical issues concerning grammaticalization of the Bulgarian and Macedonian postpositional definite articles. First, there are different opinions about perspectives on what qualifies a definite marker as an article. Meeting all the necessary criteria, the Bulgarian and Macedonian nominal definiteness markers are proven to be highly grammaticalized. Second, Bulgarian and Macedonian dialects feature either a monistic or a tripartite postpositional definite article system, and there is a debate about which system appeared first. Third, linguists argue over whether the Bulgarian and Macedonian postpositional articles are enclitics being an independent word or affixes as part of a word. Fourth, there are different hypotheses about when and from where the Bulgarian and Macedonian postpositional definite articles originate. Finally, there is a question about a correlation between the emergence of postpositional articles and the loss of nominal cases in Bulgarian and Macedonian, and a correlation between the definiteness of articles and the definiteness of past tense forms in these languages.

Keywords: Bulgarian, Macedonian, Slavic, Balkanism, Sprachbund,  
Definiteness, Postpositional Definite Article, Grammaticalization

■ 논문투고일 : 2025. 01. 10

■ 심사완료일 : 2025. 02. 02

■ 게재확정일 : 2025. 02. 07